

보살의 길

2010년 여름호 제 42호



5월 우담바라 자원봉사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나의 정원(庭園)



진 관 사무국장

내가 수리(修理)산 자락으로 이사한 것은 늦가을 이었다.
낙엽도 다 지고 난 수리산은 나뭇가지만 바람에 춤을 추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이리로 이사한 것은 수리 산이 병풍
처럼 둘러쳐 있어 우선 공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라가 바로 산 밑에 위치하여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분위기가 좋았
다. 이사하고 며칠 후 밤에 창문 커튼사이로 보이는 늦가을 밤하늘에 별
이 내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이런 하늘의 별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시내 아파트에서 보는 별이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사 온 마을은 농촌의 풍경이 남아 있어 나에게 목가적(牧歌的) 상념
(想念)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청정(淸淨)하다.

창문으로 별을 보며 나 어릴 때 고향 하늘의 별빛을 보는 듯 정겹고 무
엇인가 가슴을 저미는 듯하다.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된 것도 이리로 이사한 덕분
이다. 그리고 12월, 창문으로 내다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있
다. 온 산의 나무들은 가지마다 눈꽃을 피여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았다. 이런 경치를 아내와 같이 보며 우리가 이사를 잘했다고 눈
으로 예기했다.

다음 날 아침 등산장비를 챙겨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밟지 않
은 눈 위로 내 발자국을 남기며 걸으니 이제껏 살아온 흔적을 남기는 것
같은 감상으로 젖어든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 덮인 산은 그야말로 깨끗
이 빨은 옥양목 천을 덮어 놓은 듯하다.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온통 눈부시도록 하얗다!

산을 내려오는 눈길은 내 발자국 소리가 뽐드득! 뽐드득! 소리를 낸다
마치 그 소리가 눈이 나에게 "당신은 지금 나의 하얀 가슴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기고 갑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그리고 봄! 이것은 생각지 못했던 풍경이 나의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 창문 앞 언덕에 개나리가 황금을 뿌려놓듯 흐드러지게 언덕을
덮어쓰고 있었다. 온통 언덕을 황금카펫으로 깔아 놓았다.

봄의 전령(傳令)이 찾아 온 것이다. 나는 한없이 창문으로 봄의 전령을
내려다보았다. 이때부터 여기 수리산과 집 앞 언덕을 나의 정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4월말, 개나리가 황금 카펫을 걷어가자 곧 진달래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온통 핑크빛 카펫으로 언덕을 덮고 있었다.

문득 김소월의 시(詩)가 떠올랐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악산
진달래 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서쇼!

네모난 창문에 가득 찬 진달래의 향기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정말로 그 위를 사뿐히 밟고 거닐고 싶다.

5월초, 진달래의 핑크빛 카펫이 사라지자 이번엔 연산홍의 붉은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인의 붉은 입술모양 도드라지게 네모의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입맞춤을 하지 않고 어찌 모른 체하랴!

나는 계절과 함께 저 위에 누워 아지랑이 꿈을 꾸리라!

그리고 5월 중순, 녹음의 계절이 시작된다.

창문으로 보이는 내 정원에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활엽수, 밤나무, 개죽나무, 전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등 그 외에도 나도 이름 모를 나무들이 녹색 옷을 입고 내 창문에 가득 담긴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바람이 심술궂게 밀어닥치니 내 정원의 나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마치 국악이 울리고 여인들이 나풀나풀 춤을 추듯 가지마다 나긋나긋 물결 같은 손짓이다.

때로는 간드러지게 추다가 바람이 크게 싸아! 하고 불면 나무들은 서로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이마를 맞대고 한 무리가 되어 춤을 춘다.

바람은 지휘자고 나무들은 가야금, 장고, 아쟁, 피리, 등의 소리에 맞추어 옷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는

여인네 같다.

달이 없는 밤에 숲속을 바라보면 어둠이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 속의 어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어둠속에서 우는 쑥국새의 울음은 그리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다, 쑥국! 쑥국! 하고 우는 소리는 암흑과 함께 내 정원과 창문을 무서움 타는 어린아이 모양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내 정원은 이렇게 극단적인 두 모습으로 보게 만든다.

이와는 달리 아침이슬이 나뭇가지와 기미줄에 수정처럼 매달려 있을 때 언제 암흑의 밤이 있었느냐는 듯 맑은 새소리가 내 귀를 노크한다.

그 중에서도 뼉~꾹! 뼉뼉꾹 하고 울어대는 뼉꾹새 소리는 처량하게 온 산에 퍼져 울린다! 아마도 밤새 몰래 남의 새둥지에 알을 내려놓고 새끼를 버린 슬픔으로 목젓이 붓도록 뼉꾹! 뼉뼉~꾹! 하고 울어대는 것 같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장끼란 놈이 숲속에서 푸드득 하고 날아올라 숲속 저편으로 날아서 숨는다.

아침이면 까치의 깹깹! 깹어대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한다.

까치가 깹어대면 반가운 사람이 온다는데 오늘 누가 오려나? 어릴 때 어른들의 얘기를 기억해 낸다.

무더운 7,8월 아파트 같으면 에어컨을 틀어 놓고도 덥다고 할 판인데 여기는 창문만 열어놓아도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친다.

그러니 선풍기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았고 에어컨은 창고에 넣어 둔 채다. 산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숲속을 지나오면서 서늘한 바람이 되어 창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심심하면 책 한권과 돛자리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로 나를 안아준다. 그 곳에서 나무 밑동에 등을 기대고 책을 펴들면 숲의 독특한 풀냄새와 책속의 예기들에 만사를 잊고, 나무들이 내뿜는 산소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집 창문에서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는 오냐 여기 있다 이리 오너라, 하고 대답한다. 나와 손자의 사랑이 숲속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끝난 후...

전 수 현(건동대학교 4학년)

어느 틈에 취직, 즉 취직+시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물론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취업은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군들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여자들은 거기에 덧붙여 결혼이라는 과제까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혼자서도 자기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삶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꿈과 행복을 보장받기 어려운 세상에, 누군

가를 돌보고 부양할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참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이나, 그에 맞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곤 하는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곳 해명양로원에서 또 한 번의 봉사 활동 겸 실습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아이가 된다고 누군가 말했었다.

육칠십년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고, 노동력이 허락하는 만큼 손자 손녀들까지 키워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노쇠하고 지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늘로 돌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런 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한참 고민해왔다. 간단한 식사 도움, 빨래, 청소 등을 비롯하여 모자이크 만들기 등,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의 활동도 실행해 보았다.

단순히 유희나 놀이를 떠나, 그 분들도 여전히 젊었을 때와 상관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입증하고 싶었다.

아직 어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나의 노력이 과연 어디까지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며, 내 꿈을 이루었을 그 언젠가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이 경험들이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혜명한마당



| 우담바라 미술활동 |

매월 우담바라 자원봉사팀이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컵등을 만들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거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대형마트 다녀오기 |

나들이 삼아 근교의 대형마트에 가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쇼핑합니다. 안마기도 앉아 보고, 시식도 하고 사람구경도하며 즐거웠습니다. 컵라면, 면도기, 과일, 빵 등 물건을 구입하여 밝은 표정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방문공연 |

6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주최로 하는 "찾아가는 공연" 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전통악기의 선율에 어르신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주 이런 질 높은 공연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 민들레 모임 외식나들이 |

걸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들레 모임에서 5월 13일 외식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딸 같은 자원봉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2년 넘게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이전 가족같은 분위기입니다. 민들레모임 화이팅!



| 사업평가 및 사례회의 |

7월 1일 2분기 사업평가와 사례회의를 하였습니다. 각 파트별로 2분기 사업을 평가하고 진행될 사업을 함께 얘기 나눴으며 또한 사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어르신관리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설운영위원 회의 |

6월 30일 시설운영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9년 사업실적 및 평가와 2010년 사업계획서를 보며 양로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생신잔치 |

매월 1회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4월엔 6명의 어르신들이 생신을 맞아 1부에 잔치와 2부엔 시니어양상봉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 자장면 외식 |

4월 23일 중국집 외식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식을 하였습니다. 자장면, 찜닭, 볶음밥 등을 드셨습니다. 외식 프로그램은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전에 조사하여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 책 읽어 드리기 |

간행물윤리위원회 주최로 책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을 8회 했습니다. 책 1권을 읽어드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6명
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위생원 1명/ 서무 1명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 ▶ 총 59명 (6월 30일 기준)
할아버지 : 27명 할머니 : 32명

2010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 지출내역(1월~6월)

수 입		지 출	
후원금종류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지 정 후 원 금	421,500	사무비	8,761,259
		자산취득비	72,900
비 지 정 후 원 금	11,731,922	사 업 비	10,645,355
		프로그램 사 업 비	2,157,190
합 계	12,153,422	합 계	21,636,704

자원봉사자

2010년 4월 1일 ~ 6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른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일그림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제조), 백련사울림회, 김하늘(차명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오정자, 유범열(아코디언), 대한적십자사, 하정자, 송길숙, 오유리, 박미자, 엄숙희, 심은숙, 권태숙, 김진화, 이은경, 박애하, 마경숙, 이은경(반야회4기),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님,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님(민들레모임), 조청길,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승학,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연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호숙, 김계숙, 한성아, 홍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사무국장, 반야회 5기, 한독병원, 화재보험협회, 서서울생활과학고, 인천보살, 백련사, 푸드뱅크, 한국거래소, 이태영, 조동현, 안양원각스님, 현성정사, 백산초등학교, 반야회 6기, 혜명보육원, 시흥동떡집, 반야회 4기, 이윤분, 김봉자, 입소자지인, 찬불가, 독지가

후원금품

윤숙현 300,000	윤재순 20,000	박성수 60,000	최형기 20,000	권기상 100,000
구봉순 10,000	이정호 15,000	서현종스님 20,000	(주)한국거래소 800,000	
이애자 20,000	한태규 1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41,100	한진택 200,000	
구희근 10,000	이은정 10,000	독지가 110,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20,000
구산 10,000	안효주 400,000	김선금 100,000	마희전 40,000	박세진 20,000
유석하 10,000	구충수가족 220,000		유복진 100,000	황준순 10,000
김송희 10,000	서경연 20,000	남분식 100,000	이정복 20,000	이태영 50,000
박희광 20,000	오정주 20,000	박영자 10,000	조방희 10,000	박성자 5,000
은선사 20,000	문금자 10,000	혜명보육원 1,000,000		독지가 432,000
황재옥 10,000	이화정 100,000	이순자 40,000	양보금 2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